

전남 민생사법경찰 인력도 실적도 전국 '최하위'

최선국 도의원, 전국에서 운영인력 가장 적은 상태

정상적 업무 불가능 · 인원 증원 등 근본 대책 필요

전남도 산하 민생특수사법경찰 팀(이하 특사경)이 조직인원과 실적 면에서 전국 최하위권인 것으로 조사돼 근본적인 개선이 요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전라남도의회 최선국 의원(안전건설소방위원회, 목포3)은 최근 전남도로부터 제출받은 특사경 운영실태를 분석한 결과, 전남도 산하 특사경팀은 총 4명으로 이

중 전남소방본부로부터 파견된 인원을 제외하면 총 3명에 불과해 실질적인 팀 운영이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다.

타 시·도의 경우 광역산하 전담팀의 경우 서울 102명, 경기 173명, 경남 9명 등으로 전남은 전국 17개 시·도 중 운영인력이 가장 적은 상태다.

최선국 의원은 "피의자와의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는 업무특성 상 2인 1조 근무가 필수적으로 3명

의 인원으로는 사실상 정상적인 업무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특사경팀의 활동실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검찰 송치실적도 올해 9월 기준 26건으로 강원을 제외하고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단속 분야도 전국에서 가장 적은 5개 분야(식품, 공중위생, 원산지, 청소년, 재난안전)에 머물렀고 이나마도 청소년과 재난안전 분야에 대한 단속실적은 아예 없었다.

반면, 경기도는 올해에만 23개 분야에서 638건을 적발, 검찰에 송치했고 특히 하천 불법점용으로 평상 영업을 하는 계곡음식점에 대한 대대적 단속을 통해 74건의

입건 실적을 올려 도나 각 시·군 특사경을 통틀어 한 건의 단속 실적도 없는 전남도와 극명한 대조를 이뤘다.

최선국 의원은 "민생사법경찰은 민생범죄와 각종 안전문제로부터 도민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이라며, "민원인들과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시·군 특사경이 처리할 수 없는 계곡불법영업 등의 문제에 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이라고 강조했다.

민생사법경찰은 검찰로부터 지명 받아 행정공무원에 수사권을 부여한 제도로 행정의 전문성을 활용해 각종 민생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운영되는 제도이다.

전남 주민생활만족도
 6개월 연속 1위 기록

전남도가 주민생활 만족도 조사에서 6개월 연속 전국 1위를 기록했다.

12일 도에 따르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실시한 10월 전국 17개 광역시·도 주민생활 만족도 조사에서 9월 조사 때보다 0.4%p 오른 63.7%의 만족도로 1위를 기록했다. 이어 서울시가 63.4%, 광주시 62.0%로 뒤를 이었다.

17개 시·도 전체의 평균 주민생활 만족도는 53.1%로 9월(52.8%)보다 0.3%p 높았다.

특히 전남도는 지난 5월 62.9%로 1위에 오른데 이어 줄곧 1위를 유지하고 있다. 2월과 3월 1위를 한 것을 포함하면 올해 10번의 조사에서 8차례나 1위를 차지한 셈이다.

이처럼 전남도의 주민생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것은 김영록 전남지사 취임 이후 '내 삶이 바뀌는 전남 행복시대' 실현을 위해 도민 삶의 현장 속으로 파고 들어가는 행정을 펼친 것이 주요했다는 평가다.

특히 지난 7월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전남의 새천년 비전인 '정정 전남, 블루 이코노미'를 선포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6대 프로젝트를 제시해 도민들에게 희망을 준 것도 한몫했다.

여기에 놓여민 공익수당을 도입, 전국 최초 농산물 가격 및 수급 안정 사업비 확보, 청년 일자리 사업인 '마을로·내일로' 프로젝트 추진, 제로페이 전남 시행 등 체감형 행복사책 추진도 돋보였다.

김영록 도지사는 10월 전국 17개 시·도지사 직무수행 평가 조사에서도 '잘한다'는 긍정평가가 64.1%를 기록, 6개월 연속 1위를 차지했다.

60%대 이상의 지지율은 전국 17개 시·도지사 가운데 김영록 지사가 유일하며 올해 조사에서 지난 4월 단 한 차례 2위에 오른 것을 제외하면 민선7기 출범 이후 계속 1위를 유지하고 있다.



광주 도착한 수능 문답지 하역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이틀 앞둔 12일 오후 광주시교육청에서 교육 관계자들이 수능 문답지를 하역하고 있다.

34개 기업 에너지밸리 추가 투자...총 430개사 투자 약속

'2020년까지 500개 기업 유치' 목표 86% 달성

한국전력은 12일 나주 본사에서 광주시, 전라남도, 나주시, 34개 신규협약 기업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제2차 에너지밸리 기업투자 협약식'을 가졌다.

이번에 투자를 약속한 기업은 34개사로 투자금액 702억원, 511명 규모의 고용 창출효과가 예상된다. 지금까지 에너지밸리에 투자유

치를 이끌어낸 기업은 총 430개사에 달하며 2020년 500개 기업유치 목표 대비 86%를 달성하게 됐다. 총 투자금액은 1조6721억원, 고용 창출효과 1만여명이다.

이번 협약식에서 한전은 한국생 산기술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에너지밸리 산학연 R&D 지원을 위

한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협약을 통해 에너지밸리 투자기업과 3개 연구기관 간 R&D 협력 활성화로 에너지, 융복합분야의 신규 사업모델 발굴과 사업화 촉진이 기대된다.

한전은 2020년까지 500개 기업유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앞으로도 에너지밸리 투자기업 지원과 에너지분야 전문인력 양성에 더욱 힘쓰는 방침이다.

신봉우 기자

목포해상케이블카 오늘부터 이틀간 휴장

"수능 배려 차원"...시설 정비 · 점검과 직원교육 계획

목포해상케이블카가 13일과 14일 이틀간 휴장한다.

목포해상케이블카는 복합승강장 인근 덕인고등학교가 2019년 수능시험장으로 지정됨에 따라 탑승객이나 진출입 차량 등으로 인한 소음 때문에 수험생들이 시험에 방해받지 않고 집중하도록 배

려하는 차원에서 휴장을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목포해상케이블카는 휴장일인 13일은 복합승강장에서, 14일은 고하도와 유달산 승강장에서 케이블카 시설에 대한 정비와 점검, 시설물 보수 및 직원서비스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목포해상케이블카는 편도 3.23km, 탑승시간 15~20분으로 다도해와 유달산, 목포시내 전경을 감상할 수 있는 국내 최장 케이블카로서 목포의 대표적 관광랜드마크이다.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퇴근시간 엄수, 행복시간 준수!

일은 근무 시간에! 여기는 퇴근 이후에!
 생활 속의 워라벨 실천으로 기업과 근로자 모두 행복해집니다.

국민 이예복님께서 제안한 슬로건입니다.